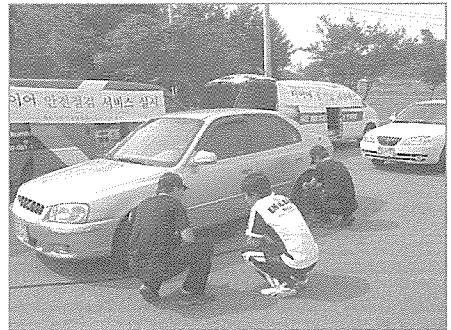


협회 소식

휴가·장마철 타이어 무상 검사 서비스 실시

우리협회에서는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타이어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을 홍보하고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업계와 합동으로 타이어 안전사용 검사 서비스 행사를 매년 (2~11월, 10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에도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에서 타이어 안전사용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7월 검사는 장마와 휴가철이 맞물려 이에 따른 빗길 장거리 주행에서의 과마모 타이어 사용 시 위험성과 적정 공기압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어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06년 3~7월간(5회) 안전검사에서는 승용차 1,490대 중 197대가 정비불량으로 100대중 13대가 타이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볼 때 정비불량 차량은 감소(16.5%)하였으나, 과마모 타이어의 사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불황과 유가상승을 요인으로 운전자들이 타이어 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우리협회는 정비불량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마모'와 '공기압 부족'을 중심으로 올바른 타이어 안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Window기반 Database 구축

우리협회는 각종 통계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기존의 DOS 운영체제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통계 프로그램을 Window형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신규 프로그램은 07년 초에 운영을 시작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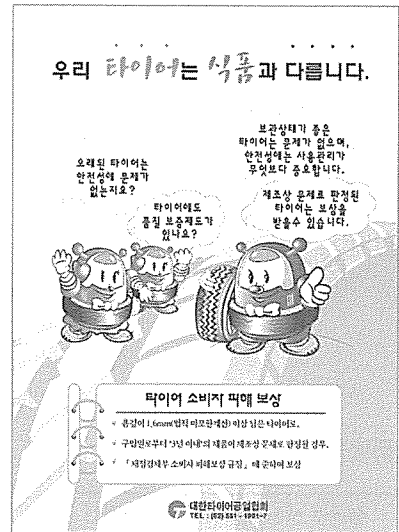
협회는 회원사의 타이어·튜브의 생산, 판매 실적을 비롯하여 관세청 통계, 폐타이어 관련 통계 등을 협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취합·가공하여 이를 다시 회원사나 관련처로 송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입력부터 출력, 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기에는 자료 입력 중 발생하는 오타 수정이나 결과물 출력 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시간소요와 애로가 있어왔다. 우리협회는 이번 통계 업무 개선 작업을 통해 향후 좀더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 타이어는 식품과 다릅니다」포스터 제작 홍보

우리협회는 방송매체의 오보로 인하여, 제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타이어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함에 따라 업계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타이어의 노화와 사용 수명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제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타이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구매를 기피하는 사례는 없다. 제조된 지 3년이 되어도 보관상태가 좋은 타이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안전성은 사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터는 “우리 타이어는 식품과 다릅니다”란 표제로 9월 중에 배포 될 예정이다.



폐타이어의 시멘트 소성로용 제한사용 규정개정

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폐타이어의 재활용 방법 중 시멘트 소성로용의 종전 사용한도 비율(80%)을 05년말에서 08년말까지 3년간 연장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의 적절한 처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이어업계의 경우 폐타이어의 회수·처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촉진정책에 따라 종전의 동법시행규칙에서는 폐타이어의 총 재활용량 중 시멘트 소성로용 사용안도비율을 06년말까지는 80%, 06년 1월 1일부터는 70%로 하향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협회는 종전 규정을 06년부터 적용할 때에는 현재 시멘트 소성로용 이외에 적절한 대체 수요처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업계가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금번의 동 개정조치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